

보이 인 더 풀(Boy In The Pool)

개 요

제 목 : 보이 인 더 풀

제 작 :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감독/각본 : 류연수

프로듀서 : 이기남

주연배우 : 미정

러닝타임 : 100분(예정)

구 분 : 저예산·독립영화

장 르 : 멜로

배 급 사 : 미정 / 국내외 영화제 출품 및 극장 개봉 예정

제작일정 : 8월 말 크랭크인 / 10월 중순 크랭크업

기획의도

수영장이라는 공간은 직사각형의 구조 안에 수평으로 쪽 뻗어 있는 수면이 고요하고 예민한 성장기의 내면과 닮아 있습니다. 발을 조금 담그기만 해도 파동이 일어나 이리저리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다가도 이내 잠잠해집니다. 변덕이 심한 만큼 다양한 모양을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의 사춘기처럼. 그러한 공간 안에서 울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것처럼 미성숙한 존재가 성장하는 과정을 영상 언어로 담아내며 유년시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스스로 잊고 있었던 가장 마법 같은 순간처럼 보일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바치는 소박해 보이지만 특별한 성장담을 그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점점 빛을 잃어가는 것 같아도 찬란히 빛났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 존재하는 영웅 같았던 소꿉친구처럼. '우주'와 '석영'이라는 두 아이의 서투르지만 순수한 만남과 또 대비되는 현재를 보여줌으로써 이미 지나가버린 유년시절만이 가지고 있었던 힘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보이 인 더 풀'은 젊은이들의 유년기, 청년기 그리고 현재까지의 모습을 남녀의 사랑의 모습으로 묘사해 기억 속의 아름

다웠던 시절을 반추해보고 싶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놓쳐버린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놉시스

12살, 수영을 좋아하는 소녀가 물갈퀴가 달린 소년을 만나 사랑에 빠지지만, 수영선수로서 전도유망한 소년을 응원하는 것과 열등감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소녀는 결국 자신을 지킴으로서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다.

10년 후, 소녀는 성인이 된 소년을 아쿠아리움에서 재회하게 된다.

작품/사진 레퍼런스



햇빛 : Natural, contrast, 직사광선, 그림자



색채 : pure white, 가로등, 낮은 형광등, 그림자

한국영화아카데미 소개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학교

국내 영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1984년 설립한 영화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30명 내외의 소수 정예의 인원으로 영화연출, 촬영, 프로듀싱, 애니메이션의 정규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장편 과정을 신설하여 연간 7편 내외의(2020년 기준) 장편 영화를 직접 제작하는 현장 실무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을 통해 완성된 영화 대부분은 국내외 영화제에 진출하여 다수의 수상 실적으로 해마다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및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11기), 허진호 감독(9기), 장준환감독 (11기), 최동훈 감독(15기), 윤성현 감독(25기), 조성희 감독(25기) 등 한국의 대표적인 영화감독을 비롯한 700여 명의 영화 인재를 배출한 국내 최고의 영화 전문 교육 기관입니다.

대표작

(2022) **윤시내가 사라졌다** / 김진화감독 / 이주영, 오민애, 노재원, 김재화

- 23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배우상

(2021) **혼자 사는 사람들** / 홍성은감독 / 공승연(진아 역), 정다운(수진 역), 서현우(성훈 역) 외

- 28회 브졸국제아시아영화제 심사위원 우수상, 넷팩상
- 42회 청룡영화상 신인여우상
- 41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신인여우상
- 22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배우상, CGV아트하우스 배급지원상

(2019) **야구소녀** / 최윤태감독 / 이주영(주수인 역), 이준혁(최진태 역)

- 45회 서울독립영화제 독립스타상

(2017) **죄 많은 소녀** / 김의석감독 / 전여빈(영희 역), 서영화(경민모 역) 외

- 56회 대중상영화제 신인여자배우상
- 28회 부일영화상 신인감독상, 신인여자연기상
- 22회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상, 올해의 배우상 외 다수

(2011) **파수꾼** / 윤성현감독 / 이제훈(기태 역), 서준영(동윤 역), 박정민(희준 역)

- 32회 청룡영화상 신인남우상, 신인감독상
- 48회 대중상영화제 신인남자배우상, 신인감독상
- 15회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상

류연수 감독 소개

대한민국 최고의 국립 예술 대학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에서 3편의 단편 영화를 만들었다. 첫 단편 영화인 <우리아빠 환갑잔치>로 국내의 우수한 독립 영화제에 초청되었고, 그 이후 <밤사이>, <반신불수가족> 등의 단편 영화로 국내의 의미 있는 영화제들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하며 단편 영화 감독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2021년 한국영화아카데미의 신설과정인 장편 시나리오 과정에서 '보이 인 더 풀'을 개발하고, 본 과정의 총 6작품 중 우수작으로 선정되어 현재 장편 제작 과정을 진행 중이다.

필모그래피

(2021) 반신불수가족 / 드라마 / 단편 / 25분

- 2021 제 3회 평창국제평화영화제 한국단편경쟁 후보
- 2021 익산장애인영화제 초청
- 2021 제4회 전북가족영화제 폐막작
- 2021 제6회 충무로영화제-단편감독주간 감독상, 신인여자배우상 후보
- 2021 제8회 가톨릭영화제 단편경쟁 장려상 수상, 스텔라상 수상
- 2021 제12회 광주여성영화제 단편모음 후보
- 2021 제22회 가치봄영화제 PDFF 경선 후보
- 2021 제22회 제주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 초청
- 2022 제24회 도시영화제 경쟁부문 우수상(극 부문)
- 2022 제14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 단편경쟁 시스프렌드상

(2019) 밤사이 / 드라마 / 단편 / 17분

- 2019 제14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단편경쟁부문 후보

(2016) 우리아빠 환갑잔치 / 드라마 / 단편 / 17분

- 2016년 제42회 서울독립영화제 단편경쟁부문 후보
- 2016년 제9회 서울노인영화제 국내경쟁 후보
- 2017년 제19회 정동진독립영화제 단편경쟁 후보
- 2017년 제22회 인디포럼 단편신작전 후보

이기남 프로듀서 소개

송해의 인생사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송해 1927>로 데뷔한 영화 프로듀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와 방송영상뉴미디어과를 졸업 후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등 크고 작은 영화제의 기획 및 프로그램 팀에서 다년간 활동했다. <송해 1927>로 부산국제영화제(2020), 제천국제음악영화제(2021)를 포함한 다수의 영화제에 초청되었다. 그 밖에 다큐멘터리 <숨>(윤재호 감독), <건축학 고양이>(조준형, 이규열 감독)을 제작 중이며, 극영화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이광국 감독)의 프로듀서를 맡았다.

영화

(2021) 장편다큐멘터리 <송해 1927(윤재호 감독)> 82min 프로듀서

- 2020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부문 경쟁
- 2021 무주산골영화제,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EBS국제다큐영화제, DMZ국제다큐영화제, 제주흔디독립영화제, 가톨릭영화제, 전북독립영화제 초청
- 2021년 11월 18일 롯데시네마 단독 개봉

(2018) 레지스탕스영화제 <공식 트레일러(김성호 감독/최희서 주연)> 59sec 프로듀서

제작중

(2022~) 장편극영화 <동에 번쩍, 서에 번쩍(이광국 감독)> 100min 프로듀서

- 2022.04.30. 프로덕션 완료 / ~현재 후반작업 진행중

(2021~) 장편다큐멘터리 <숨(윤재호 감독)> 90min 프로듀서

- 2019 DMZ국제다큐영화제 기획개발 선정작
- 2021 DMZ국제다큐영화제, SJM문화재단 제작펀드 선정작
- 2022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시네마프로젝트:넥스트 에디션 최종 선정작
- 삶과 죽음을 다루는 장의사와 파지 좁는 할머니 이야기

(2021~) 장편다큐멘터리 <건축학 고양이(조준형, 이규열 공동감독)> 90min 프로듀서

- 2021 EBS국제다큐영화제 커미셔닝 피칭 '다큐 프라임 상' 수상
- 건축, 고양이, 공존 소재 다큐멘터리

도서

2021.11.15. <송해 1927> 송해, 이기남 지음 / 사람의집(열린책들) 출판

- <송해 1927> 촬영 인터뷰 및 제작기 집필